

광주 봉축위, 연희단 활성화 나선다

어린이·청소년 연희단 발굴에 진력

연희단은 '연등회의 꽃'으로 불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등회의 활력과 즐거움이 연희단에서 비롯됨을 비유한 말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연희단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못해 불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빛고를 광주에서 연희단 활성화 위한 새로운 시도가 엮여 화제다.

지만 행사를 통해 불자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싶다"며 기획단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

일명 스님은 연희단 활성화의 구체적 실천방법에 대해 "연희단은 우선 기존 사찰 합창단을 연희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당 사찰과 협의 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중립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기존 합창단의 연희단 변화 모색

마주보는 원형 특색행사장 준비

운동지도자 양성 강습·회원모집도

이·청소년 계층의 연희단을 발굴하고 불교단체의 연희단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희단 활용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연희단은 연습한 것을 발표할 공간과 시간이 중요하다. 서울행사처럼 먼저 봉축법

요식에 앞서 어울림마당을 통해 연희단의 공연과 활기찬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년 빛고를 연등축제에 선보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연희단.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증현 스님은 "효과적인 어울림마당을 위해 신도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도록 계단형 관람석을 무대 주변에 설치해 원형 경기장 형식의 행사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 도심에 서울과 같은 원형 행사장을 확보하기 어려워 부득이 아시안화전당 앞 광장에 조립식 관람석을 설치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명 스님은 "향후 연희단 운동지도자

를 양성하기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고, 1월 중 연희단 구성을 위한 회원모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불교계는 지난 2008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처음 연희단을 선보인 적이 있으며, 지난해 봉축행사에 연합합창단이 단체운동을 선보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월까지 연희단 구성을 위한 단

원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참좋은우리절, 청소년 심리치유 캠프

15~17일 마음다스림 통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이 청소년들의 마음다스림을 통한 자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치유 캠프를 개최한다.

1월 15~17일 2박3일 일정으로 참좋은우리절 명상나눔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창의력과 집중력 향상,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시경쟁을 통한 정서적 불안감, 산만함, 학업스트레스 치유와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심리치유 캠프는 진로상담 전문교사의 집중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에 따라 방학에 맞춰 열리면서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캠프는 심리검사와 적성테스트, 미술치료, 영상관법치료, 연극치료 등의 프로그램과 용구통제를 통해 마음을 자각하는 SATI, 미드 알파와 유도기술을 통한 두뇌 튜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리치유 캠프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프로그램을 일반 청소년에게 제공해 포교와 전법 활성화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좋은우리절 지도법사 무근 스님은 "그동안 청소년심리치유캠프를 진행하며 축적된 여러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인성프로그램과 접목해 보다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 청소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주사 전설, 가족 뮤지컬로 만난다

천불천탑 이야기 13일까지 빛고을문화회관서

운주사 와불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국악체험 뮤지컬 '얼씨구나 벌떡, 와불와불'이 수도권 공연에 이어 광주에서도 화려한 공연의 막을 올렸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인 '얼씨구나 벌떡, 와불와불'은 2014년 전남·광주 스토리랩 최우수 수상작으로 오는 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1월 2회 공연한다. 공연은 평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30분, 주말은 오후 2시·5시에 열린다.

탄탄한 스토리와 어린이 참여형이라는 흥미진진한 구성이 돋보이는 이번 뮤지컬은 고양시 초연에서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 관객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화순 운주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와불의 전설을 모티브로 한 연극은 운주사 와불의 전설로부터 천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엉뚱하고 호기심 많은 소녀 단지가 동자승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머슴불, 하늘의 별이 되고자 하는 칠성팔을 만나 와불을 일으킬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천불산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화려하고 다양한 시각효과와 색다른 국악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에게 친구의 진정한 가치까지 알게워줄 오감만족 뮤지컬로 주목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사찰, 차분한 새해맞이

선운사 '詩, 음악으로 말하다'·금산사 해님이 법회

전북지역의 사찰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병신년 새해를 맞았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구랍 31일 경내 지장보궁에서 올미년 한 해를 마감하고 병신년 새해 새 희망의 아침을 맞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詩, 음악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시와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한 해의 마지막을 감성으로 물들였다.

김이곤 음악감독의 시·음악해설과 더불어 김중현 피아니스트, 장우리 첼리스트가 출연해 1년 사계절을 찬탄한 아름다운 시와 음악을 하나로 묶었다. 음악회에 참석한 청중은 '고향의 봄', '동심초'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과 '사랑이야', '얼굴', '가을편지', '열애' 등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진 대중가요를 함께 들으며 올미년 한 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했다.

음악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해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을 비롯

한 스님들과 선운사노인종합복지관, 나누리봄들이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직원들이 동참했다. 또 병신년 새해 아침을 산사에서 맞이하기 위해 선운사를 찾은 200여 명도 스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범종각에서는 자정을 기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범종을 타종하며 지난해의 액운을 떨쳐버리고 새해 소망을 소원지에 담아 기원했다. 타종 후에는 지장보궁에서 새해 첫 철야정진이 봉행됐다.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철야정진은 <지장경> 독경, 지장정근, 1080배 정진 등이 이어졌다. 아침 일찍 공양을 마친 대중은 도솔산 천마봉에 올라 새해 일출을 감상하며 저마다 병신년 새해 소망을 기원했다.

경우 스님은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선운사 대중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와 절야정진에 동참한 이상현 불자는 "새해에는 회사도 안정되고



구랍 31일 군산 은적사에서 봉행된 금산사 해님이 법회에서 대중이 탑돌이를 하고 있다.

가족도 건강하고 주변사람들도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1년 뒤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족과 함께 사찰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금산사(주지 성우)는 구랍 31일 서해의 끝자락에 자리한 군산 은적사에서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해님이 법회를 봉행했다.

해님이 법회는 성우 스님과 남고사 주지 원해 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립 스님, 금산사 포교국장 지월 스님을 비롯

한 스님들과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동참대중은 탑돌이와 범종 타종을 하며 메르스 사태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올미년 한 해를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병신년 새해 전북불교발전과 각자의 소망을 기원했다.

성우 스님은 "행복은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신심과 열정으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2016 상반기 재적승 장학금 신청

1월 20일까지 관련서류 종무소 접수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주지 정남)가 1월 20일까지 2016년 상반기 재적승님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대학 신입생 및 재학중인 제4교구 재적승님이다. 신청희망자는 장학금 신청서(본사양식)와 재학증명

서(신입생은 합격증 사본), 등록금영구서(고지서) 사본 각 1부이며, 월정사 종무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033-332-6915)·이메일(woljeongsa@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033-339-6613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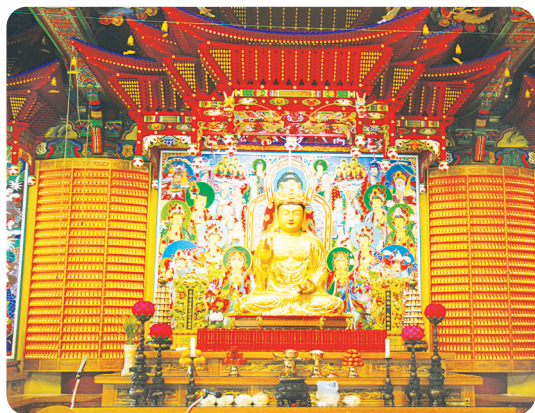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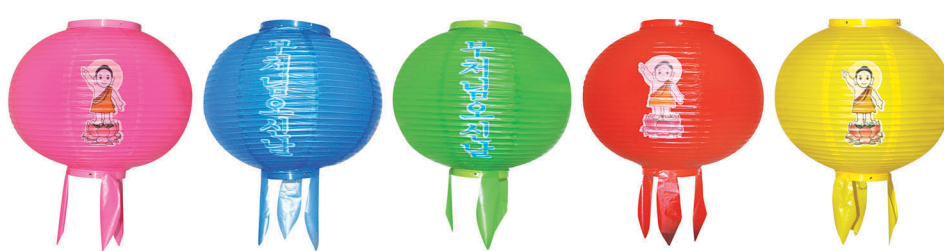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공단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안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